

우리동네(인니 수마트라 서부 PADANG, Minangkabau) 소식 (서훈아웃35번째)

2025년 3월 8일(토요일)
빠당시, Indonesia.

보내는 이 : 정이브라힘, 김사라(예림.유신) 올림
이메일 주소 : jjs1026@gmail.com/ 카톡ID : jjs1026

샤알~롬!! 그 동안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주관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소식이 늦어 많이 궁금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모친상을 당해 잠시 귀국하여 장례를 은혜가운데 잘 치르고 여러가지 뒷일을 정리하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돌아오니 여기서도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무리 하고서 이렇게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늘 두 손 모아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나라도 안정되고, 공동체도 평안하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저희도 기도합니다.

◎ 캠퍼스 및 청년사역(안달라스 대학교)

▶ 2025년 신학기에 다시 시작할 <한국어동아리>모임을 위해 모집광고를 시작하다.

그동안 제가 갑자기 한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 사실상 한국어동아리 모집광고가 늦어졌습니다. 모집광고는 미리 준비해두었지만, 정작 제가 이곳에 없어 새내기 신입회원의 연락을 받거나 면접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대학언어센터의 강의실을 임시로 빌려 다시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福音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봅니다. 함께 ㄱㄷ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여청년 <딜라>(수석졸업, 영어학원강사) (엄마 데위, 여동생 아린, 따샤, 기나, 아이니, 남동생 라빠)



이 소식이 좀 늦어졌지만 지난 새해연초에 여청년 딜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 소식에서 聖靈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자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지속하는 게 서로의 신뢰의 간격을 좁히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초대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며 많은 공을 들인 터라 쉽게 끊어질 관계도 아니고 해서~그 후에 시내 해변가에서 다시 만나 생선과 대하구이를 비롯해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는 해변카페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는 또다시 중요한 얘기?를 예화를 곁들여 전하면서 제가 준 자료를 꼭 읽어보라고 하고, 또 聖經 앱을 깔아주면서 하느님 말씀도 꼭 읽어볼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씨 뿌리고 물주고 가꾼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봅니다. 딜라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ㄱㄷ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여청년 <빌라>(아빠 인드라, 엄마 미다, 쌍둥이 언니 요나, 요니, 남동생 라빠)

빌라 여청년은 계속 공부와 信仰훈련을 병행하며 聖靈 충만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도제식 신앙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나거나 이웃과 교제하거나 傳道하거나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동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늘 곁에서 보고 배우며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은 담대하거나 용감하지 못해 스스로 혼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주변의 시선이나 닥칠 고난이 두려워 실제 생활 속에서 傳道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겐 傳道를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말대로 점점 담대해지며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자립하여 사역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며 공무원이나 좋은 직장의 길도 찾고 있는데~~이번에 임시직이나마 두 달짜리 알바자리도 구해서 자기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는 함께 주님께 크게 감사했습니다~~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2월 10일엔 버르고 버리며 기도로 준비해 온 **성찬식**을 함께 하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찾은 새로운 믿음의 식구와 함께 주의 **聖餐**을 나누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빌라자매와 그의 대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 건물이 아닌 사람(일꾼)을 세우기를 원하며 (M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쌀락동네 젊은 종교지도자(우스타드) “안디”와 부인 “줄리따”, 그의 가족들(동생 파즈리).**



저희가 처음 빠당시에 도착해 블림빙에 집을 구하고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평화의 사람을 찾던 중 만난 이맘 푸안씨와 딸 아유니가 소개해 준 젊은 청년 안디가 벌써 이슬람종교대학원(UIN)까지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리고, 어느새 어엿한 가장에다 진짜 **종교지도자(우스타드)**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에게 이슬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 자기가 바빠지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인지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끔씩 지나가며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럭저럭 관계를 이어가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결혼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을 취하며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슬람대학원에서 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앞으로 계속 이슬람공동체 내에서 종교지도자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만일 그도 회심하고 돌아온다면 지역사회 종교지도자로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그는 졸업 후에 빠당 TV나 서부수마뜨라 TV에 출연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각 모스크를 돌며 설교자로 쓰임 받고 있기에, 저희는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회가 되는데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와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세요~~감사합니다.



▶**대학교수이면서 우스타드인 “줄”(=Zulkarnaini)과의 지속적인 만남. 부인“아니”, 그 일곱(7) 자녀들.**

한동안 드러나지 않게 밀고 당기며 영적 줄다리기를 하다가 얼마동안은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고 그러다가 다시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오던 중, 제가 이제 한 번쯤은 그 댁을 방문해봐야겠다 생각이 나서 연락을 취했더니, **줄교수**가 금방 답장이 와서 **“옴로”**(무슬림이 평생 한 번 의무적으로 가는 메카聖地순례인 **하지**와 조금 다르지만, 이 작은 순례는 **성지 메카(카바)**, 특히 큰 모스크(**하람모스크**)에서 기도와 여러가지 禮拜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상급을 쌓는다고 믿는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사진을 좀 보내보라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사진은 안보내고 새벽에 문자가 와서는 지금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하람모스크**(성지인“카바”옆에 있는 큰 모스크)에 와있는데 저와 김사라를 위해 자기가 무얼 하느님께 빌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부부가 항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을 의심한 **아니**부인 때문에 비록 그가 갑자기 저희를 멀리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ㄱㄷ하면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사 어느 날 갑자기 두렵고 떨린 마음에 救援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 하느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줄교수**를 붙잡히 여기서 크신 恩惠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救援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men...

▶**안달라스 대학교 언어센터 여직원 남편, 우스타드 “울렐”과 부인“헬마” 아들 하피즈.**

오래 알고 지내는 대학언어센터 여직원 **헬마**는 한국어동아리 모임을 위한 강의실을 빌리는 문제로 제가 자주 연락을 취하고, 그 남편 **올렘씨**에겐 제가 이슬람 신앙교육내용이나 꾸란의 해석이 궁금할 때마다 문자를 통해 가끔 연락을 취하며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보기에든 근본심성이 선하고,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도 강한지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느님나라 위해 일할 것이 느껴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이라도 함께 **올렘씨**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쌍까락 호숫가, 말랄로 마을** 이맘 **“말린”**과 부인 **“이까사리”**, 그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먼저 제가 바쁘고, 또 서로 거리가 멀어서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편한 마음으로 연락하며 지내는 시골의 옛 친구 같은 **말린**은 자주 연락을 취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모친의 소천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비록 장례식에는 찾아오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린**과 **이까사리** 부부가 모시고 사는 처조모가 아주 연로한데다 몸이 많이 불편해 자신들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돌볼 사람이 없어 당분간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린**이 이제 지역군수와 유지들과 어울리며 나름 잘나가는 인생이 되자 마음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 저희가 기도하기를, 무엇보다 그가 인생의 실패와 한계로 곤고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다시 하느님을 찾고 진지하게 하느님을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와 그를 만져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새로운 주변(M)이웃들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심방, 전도, 기도모임

▶ 성격이 아주 밝고 씩씩하고 친절한 **샤라** 아주머니(남편 **떼니**, 큰딸 **까르띠까**와 큰아들 **하난**, 둘째딸 **피오나**, 막내아들 **레즈끼**)



한동안 밀고 당기며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영적반항을 하던 **샤라**아주머니가 드디어 말씀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랜 시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부를 거부하다가(물론 저의 정체성도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외국인인 당신이 무슬림인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강했겠지요) 저희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한두 달 전에 작심하고 권면하기를, 힘든 때일수록 다시 말씀공부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고 요청했는데~~감사하게도 흔쾌히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주부터 약속을 지키며 **띠까**까지 데려와 매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숙제를 사진 찍어 제출하고, 지금 라마단 금식월 기도기간이지만 이번 다가오는 주에도 다시 만나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Hal렐lu야!

남편 **떼니씨**와 큰딸 **띠까**,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면서 상냥하고 마음은 호의적인 **이따**아주머니와 언니 **무니**아주머니, 자녀, 친구들)

계속해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 매일 밤마다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며 운동을 하다 보니, 이사람, 저사람, 아주머니, 아이들, 말을 거는 새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 이것 또한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상의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사할 빈 집을 찾다가(이사한 집을 수리했지만 또 다른 곳에 계속 비가 새고, 주인은 돈이 많이 든다고 고쳐주기를 거절해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 골목의 **이따**아주머니와 언니 **무니**아주머

나는 정말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저희를 자기집으로 맞아주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두 분 다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심지어 한국과 일본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건강식)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저희와 함께 어울리며 열린 마음과 사고로 세상 모든 얘기를 들어줄 의향이 있어 보여(외부인인 저희와 집안에 함께 있을 때 히잡도 벗을 정도로) 저희가 가끔 놀러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곤 했는데, 하루는 저희가 한국음식(짜장면과 김치)을 대접하고 싶는데 어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약속을 하고 음식을 준비해 빌라여청년과 함께 찾아갔더니, 글썄 여러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福音을 받고 예수님을 救援主로 믿어 天國 백성(하느님의 자녀)이 되어 永生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 속에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히 분위기를 밝가며 ㄱㄷ하며 만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분들에게도 救援의 恩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 자매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감사합니다.

◎ 저희와 이웃(수마프라섬 미낭까바우족 Mu슬림)을 위해 필요한 도고

1. 매일 예배와 큐티를 통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희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매일매순간을 은혜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보살펴주시되, 聖靈의 충만한 은혜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 은혜를 부으사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옵소서.
2. 이곳 MK족을 품은 저희의 사랑이 참되게 하시고, 하느님이 주신 킹덤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브라힘과 사라가 새로운 이웃과 잘 어울리며 의미있는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빌라자매가 聖靈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담대하게 福音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교제하고 있는 M선생들(우스타드), 아주머니들 가정과 (딜라)자매와 (아유니)자매, (뽀지)형제도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3. 정이브라힘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사 비자를 위한 논문작성도 잘 마무리하도록, 새 비자나 모든 사역의 길이 계속亨通하도록 선히 인도해주옵소서! 셋집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머지 지붕누수를 잘 고쳐주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신실하고 재능있는 일꾼도 붙여주옵소서!
4. 양가 형제들 구원받도록, 김사라의 모친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딸 예림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과 삶이 더 건강하고 강해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들 유신이도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앞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후원 계좌번호

농협(정★성) 703023-56-015967 우리(정★성) 1002-359-366943 하나(정★성) 167-890741-30807

★ 이 자료를 인터넷에는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저희의 본명은 사용하지 마시길~~)